# 6월 2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6월 2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 제목 | 주요 내용 |
| --- | --- |
| 美 증시, GM 극복하고 급등..다우 2.6%↑ | 미국과 중국의 경기지표가 함께 개선되면서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음.<br>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221.11포인트(2.6%) 상승한 8,721.44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4.35포인트(3.06%) 급등한 1,828.68을,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23.73포인트(2.58%) 오른 942.87을 각각 기록했음.<br>제너럴 모터스(GM)가 파산보호를 신청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 이미 충분히 예고된데다, GM의 파산보호신청을 계기로 오히려 미국 자동차산업의 불활실성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왔음. 미국과 중국의 경기지표 개선으로 위험자산인 증시가 급등을 보인 반면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 달러화와 일본 엔화는 약세를 보였음. |
| GM 파산보호신청 | 제너럴 모터스(GM)가 파산보호를 신청했음. 올들어 크라이슬러에 이어 미국 자동차 빅3로는 2번째임. GM의 파산보호 신청은 회사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GM은 미 정부의 추가적인 자금지원하에 파산법 원안에서 회사의 정상화를 다시 추진하게 됨. GM은 향후 2~3개월 후에는 파산보호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이전에 비해 몸집은 크게 줄어들 전망임. GM의 파산보호 신청은 미국 자동차산업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지만, 주식시장의 입장에선 GM과 미국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계기로도 작용했음. |
| 다우 지수에서 GM·씨티그룹 퇴출 | 다우 존스는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Dow Jones Industrial Average) 구성종목에서 파산보호를 신청한 제너럴 모터스(GM)를 퇴출시켰다고 밝혔고 금융위기에 따른 부실화로 대규모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은행업종의 대표성을 상실한 씨티그룹도 다우 지수에서 탈락시킨다고 덧붙였음. 다우 존스는 그 대신 세계 최대 시스템 장비업체인 시스코시스템즈와 2002년 씨티그룹에서 분리된 보험사 트래블러스를 다우 종목에 새로 편입했음. 시스코 시스템즈와 트래블러스는 이날 4% 안팎의 강세를 보이며 시장 반등에 도움을 줬음. |

| 제목 | 주요 내용 |
|---|---|
| 美·中 제조업 경기 동반 개선 징후 | 공급관리자협회(ISM)가 발표한 5월 제조업지수가 8개월래 가장 높은 42.8을 기록했음. 지수는 2월 35.8, 3월에 36.3, 4월 40.1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고, 시장의 전망치도 웃돌았음. 앞서 중국 물류협회는 지난 5월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3.1을 기록, 경기 확장 및 수축의 기준점인 50을 3개월 연속 상회했다고 밝혔고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지표가 동반 개선세를 나타냄으로써 이날 뉴욕증시에선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음. |
| 4월 건설지출도 예상밖 증가..소비지출 감소폭도 전망치보다는 적어 | 미국의 4월 건설지출도 감소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뜻밖의 증가세를 기록하여 미 주택시장 침체가 완화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고개를 들었음. 미 상무부가 발표한 4월 건설지출은 전월비 0.8% 증가했고 당초 1.5% 가량 감소할 것이란 시장의 전망치와 달리 증가세를 기록했음. 미 상무부가 발표한 4월 소비지출은 0.1% 감소했음. 실업에 대한 우려감과 가계의 자산가치 하락 등이 영향을 미쳤으나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던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감소폭이 적었음. |
| 日 1분기 디플레이션 갭 8.5%..30년 최고 | 일본의 1 분기 디플레이션 갭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45 조엔에 달해 지난 1980 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4 분기에도 4.5%를 기록, 디플레 갭 확대가 지속되고 있음. 코노 류타로 BNP 파리바증권 연구원은 "디플레 갭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5 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음. |
| 유럽증시, 2.9% 급등..11 월 이후 최고치 | 유럽 다우존스 스톡스 600 지수는 2.9% 급등한 214.31 을 기록했다. 지수는 작년 11 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3 개월 연속 확장국면을 이어가며 수요회복 기대감을 낳은데다, 금속가격 상승세가 영향을 미쳤음. 국제유가 강세가 이어지면서 프랑스의 에너지 기업인 토탈이 3% 가까이 상승했고, 로얄 데치 쉘도 강세로 장을 마쳤음. |
| 5 월 외환보유액 `사상 최대` 143 억弗 증가 | 2 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 월말 기준 외환보유액 잔액은 2267 억 7,00 만달러로, 지난달 보다 142 억 9,00 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은은 무역수지가 5 월 52 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넉달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은행의 해외채권 발행이 잇따르면서 외화자금조달 능력이 개선된 것이 외환보유액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음. |
| 韓, 對아세안 ODA 2015 년 4 억불로 증액 | 이명박 대통령은 1 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연설에서 "아세안 국가와 개발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역내 개발 격차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은 ODA 증액 계획을 밝혔음. 이 대통령은 또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2015 년까지 총 7,000 명의 아세안 연수생을 국내에 초청하고, 월드프렌즈코리아 프로그램을 통해 IT 분야 등을 중심으로 1 만명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음. |
| 현대차, 中서 `질주`…두달 연속 5 만대 판매돌파 | 현대차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10 대산업 진흥정책의 일환인 자동차시장 부양정책과 잘 맞아떨어진데다 제품도 자체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중국 정부는 지난 1 월 20 일부터 올해 말까지 1600 cc 이하 차량의 구입세를 10%에서 5%로 감면하고 유가를 30% 인하하는 등의 자동차 부양정책을 시행 중임. |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